

어머니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성정혜¹⁾ 김춘경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의 6차, 7차, 8차년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상호관계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 결과, 초기값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의 불안/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어머니 우울, 부모 양육행동, 유아 불안/우울

I. 서론

유아기는 신체 및 운동기능, 사회정서, 인지, 의사소통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Lyons-Ruth, Connell, Grunebaum, & Botein, 1990), 인간

* 본 논문은 제8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2017.10.20.) 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으로 기능하기 위한 모든 기반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발달과정 중 유아들은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Werner, 1995). 하지만 유아들 중 일부는 환경으로부터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문제행동에 빠지게 되는데(Skalicka et al., 2015), 최근 유아기의 문제행동들 중 우울이나 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by, 2010; Yoo & Lee, 2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아 분리불안 장애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6년 545명에 달하였고 그 중 5~9세가 전체의 55.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KPA NEWS, 2017. 7. 27), 우울증 진단을 받은 4~14세 아동이 2014년에는 6,341명, 2015년에는 5,402명, 2016년에는 5,698명으로 1년에 약 6,000명 안팎의 소아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정책뉴스, 2017. 9. 4). 또한 어머니와 분리된 생후 6개월 된 유아에게서도 우울증 증상이 발견되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는 우울과 불안의 심각한 저연령화를 보여주고 있다(아시아엔, 2017. 9. 7).

유아의 불안,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도와 지속성이 약화된다면,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지만(Kauffman, 2005), 약화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학업문제나 비행,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이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개입되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지영·강성단·권경숙, 2010; Feil, Severson, & Walker, 1998). 유아의 문제행동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단적 접근을 실시한 Campbell(2002)의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이후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불안/우울을 시간적 변화에 따른 차원에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유아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유아의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 환경인 부모는 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지원하는데(김선희, 2016), 다수의 연구들은 유아의 우울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우울에 주목하고 있으며(Turney, 2012; Weissman & Jensen, 2002),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자살시도를 하는 사건(한겨레, 2018. 4. 27)과 우울증을 겪고 있던 여성이 2살 된 딸을 방치하여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중앙일보, 2018. 4. 11)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Weissman 등(1997)의 4년에 걸친 임상연

구에서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를 둔 자녀들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장애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으며, Goodman과 Gotlib(2002)의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 중 약 40% 정도는 불안이나 우울장애, 반항성장애와 같은 정신의학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정서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녀의 육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애정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양육기술의 손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게 된다(Gordon et al., 1989). 정서적 안정 이론(Emotional security theory)에 따르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은 그들이 속해있는 가족 환경 내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개인적인 느낌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우울감에 빠져 자신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며 자녀의 정서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Cummings, Cheung, & Davies, 2013). Adam과 Gunnar, Tanaka(2004)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지닌 어머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일관되지 않은 양육태도를 보여 자녀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도현심 등(2012)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부적이며 덜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자녀의 정서적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살펴볼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인지적 발달 및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따라 유아의 불안, 우울과 같은 문제행동이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이미애·김광웅, 1995). 또한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높은 지시성과 신체적·언어적 처벌을 사용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불안과 우울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ang et al., 2005), Olsen과 Ceballo, Park(200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심리적인 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정서적·행동적 문제행동이 쉽게 일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최근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연은모와 윤해옥, 최효식(2016)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독립적인 측면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Verhoeven 등(2010)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또 다르게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함께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살펴볼 것이다.

종합하자면,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불안/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이 지속될 경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감소될 수 있으며, 유아의 불안/우울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유아기에 나타나는 불안/우울의 변화와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때 더욱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발견될 수 있다. 종단연구를 활용하면 효과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효과가 유지되는지,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Gollob & Reichardt, 1987).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통해서 특정한 처치가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측정된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MacKinnon & Fairchild, 200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의 이전 시점의 상태를 통제한 이후에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에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변인 간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우울 초기치·변화율과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치·변화율 간 부모의 양육행동 초기치·변화율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을 기준으로 1차에서 전국의 0세 유아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8차(2015)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종단 자료들 중 6차(2013년), 7차(2014년), 8차(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1,176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2013년)			N (%)
가구 특성	거주지역	서울권	163(13.9)
		경인권	311(26.4)
		대전/충청/강원권	171(14.5)
		대구/경북권	146(12.5)
		부산/울산/경남권	225(19.1)
		광주/전라권	160(13.6)
자녀 특성	성별	남아	622(52.9)
		여아	554(47.1)
	출생순위	첫째	523(44.5)
		둘째	500(42.5)
		셋째	138(11.7)
		넷째	13(1.1)
		다섯째 이상	2(0.2)
어머니 특성	연령	25세-29세	20(1.7)
		30-34세	343(29.2)
		35-39세	637(54.1)
		40세 이상	176(15.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7(27.0)
		전문대 졸업	382(32.5)
		대학교 졸업	445(37.8)
아버지 특성	연령	35세 이하	155(13.2)
		35-39세	555(47.2)
		40세 이상	466(39.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8(27.0)
		전문대 졸업	262(22.3)
		대학교 졸업	529(45.0)
		대학원 졸업	67(5.7)
전체			1,176(100)

2. 측정도구

가. 어머니 우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 등(2002)이 개발한 K6(Kessler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국 보건 면접 조사에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도구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다는 것은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6차 .911, 7차 .928, 8차 .920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와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이 개발한 양육행동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통제적(부정적) 양육행동과 온정적(긍정적) 양육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통제적(부정적) 양육행동을 역채점하여 평균값이 높을수록 온정적(긍정적)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6차 .802, .876, 7차 .790, .860, 8차 .790, .881로 나타났다.

다. 유아의 불안/우울

유아의 불안/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0, 2001)가 개발한 CBCL 1.5-5와 CBCL 6-18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 2010)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CBCL 1.5-5(한국판 영유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와 한국판 CBCL 6-18(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을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3점 척도로 각 문항 T점수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6차 .716, 7차 .719, 8차 .722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변화 패턴을 추정하고 변인들의 변화율 사이의 관련성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의 유의미한 정도와 한 변인에서의 변화와 다른 변인에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변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모형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간의 관련성과 변인들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다(Duncan & Duncan, 200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측정오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전 시점의 값으로부터 이후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자기회귀(autogressive)계수와 한 변인의 이전 시점의 값으로부터 다른 변인의 이후 시점의 값을 예측하여 얻어진 교차지연(cross-lagged)계수로 이루어져 있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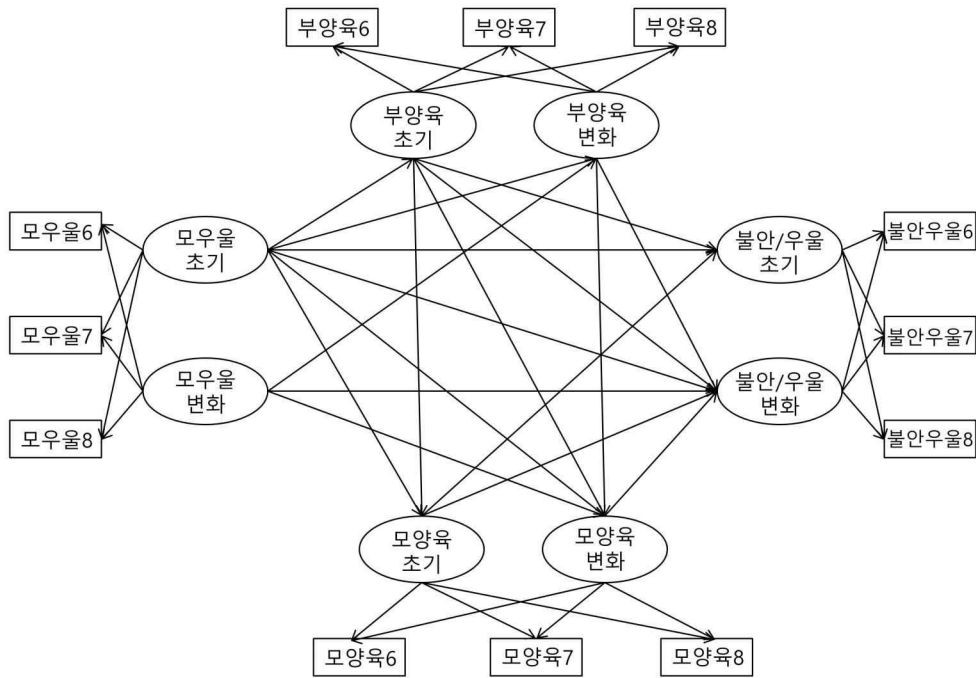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통계프로그램인 AMOS 18.0을 사용하였으며,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FIML은 결측자료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모든 자료의 케이스에 대한 우도를 계산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장점으로(Finkelstein, 1979),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거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측정한다(Arbuckle, 1996).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Tucker & Lewis, 1973), CFI(Bentler, 1990), RMSEA(Byrne, 1998; Steiger & Lind, 1980)를 사용하였다. RMSEA 값은 .1이하이면 보통, .08이하이면 양호, .05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며, TLI와 CFI는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된다(홍세희, 2000).

4. 연구모형

가. 연구모형 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모형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 1을 통해서는 어머니의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이 부모의 양육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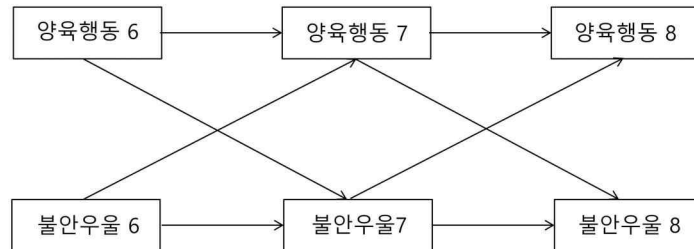
동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1

나. 연구모형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III. 연구결과

1. 요인별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다.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점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각 시점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6차(2013년)	7차(2014년)	8차(2015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우울	1.907(.717)	1.886(.733)	1.799(.716)
어머니 양육행동	3.074(.326)	3.076(.337)	3.077(.336)
아버지 양육행동	3.087(.381)	3.093(.368)	3.096(.362)
유아의 불안/우울	53.124(5.152)	53.130(5.124)	53.501(5.165)

2. 변인별 분석모형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 변화정도를 기초로 변인들 간 관련성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 <표 2>에 제시된 세 시점의 평균변화패턴을 바탕으로 각 요인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변수의 경우에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증가-감소 또는 감소-증가의 형태를 보이는 변수의 경우에는 무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김은주·김민규·임은비, 2012). 일관된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각 시점에서 발생한 변화는 무선오차(random error)로 간주하였다(이수진·홍세희·박중규, 2005).

〈표 3〉 각 요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χ^2	TLI	CFI	평균		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어머니 우울	무변화	48.735	.962	.950	1.867*		.264*	
	선형변화	3.771	.991	.997	1.915*	-.053*	.351*	.051*
어머니 양육행동	무변화	12.415	.995	.994	3.076*		.069*	
	선형변화	1.703	.998	.999	3.075	.002	.069*	.005*
아버지 양육행동	무변화	8.171	.997	.996	3.093*		.079*	
	선형변화	3.227	.994	.998	3.089*	.004	.088*	.006*
유아의 불안/우울	무변화	73.754	.939	.919	53.218*		13.327*	
	선형변화	2.447	.995	.998	53.102*	.163*	22.275*	3.844*

세 시점에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을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은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모든 변인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요인 별 분석결과 〈표 3〉에서 모든 모형의 변화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에 대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을 포함시켜 변인 간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 .976, CFI .987, RMSEA .037(HI: .046, LO: .028)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모수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어머니 우울 초기	→	아버지 양육행동 초기	-.131	.021	-.276
어머니 우울 초기	→	어머니 양육행동 초기	-.144	.020	-.318
아버지 양육행동 초기	→	어머니 양육행동 초기	.344	.039	.361
어머니 우울 초기	→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	2.570	.337	.404
어머니 우울 변화	→	유아의 불안/우울 변화	6.012	2.997	6.798
아버지 양육행동 초기	→	유아의 불안/우울 변화	-.861	.432	-.094
어머니 양육행동 초기	→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	-1.684	.750	-.120

초기치와 변화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경로별로 분석하기 위해 부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어머니 우울6 초기값 → 어머니 양육행동7 초기값 → 유아의 불안/우울8 초기값	.334*
아버지 양육행동6 초기값 → 어머니 양육행동7 초기값 → 유아의 불안/우울8 초기값	-.643*

* $p < .05$

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 초기값이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 초기값이 유아의 불안/우울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변화율을 중심으로 한 종단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결과

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연구모형의 동일성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기본모형(모형1)의 적합도를 시작으로 모형2부터 모형6까지는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7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기본모형	7.276	1	.955	.997	.073
모형2: 양육행동(A)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9.796	2	.936	.996	.087
모형3: 불안/우울(B)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2.942	3	.960	.995	.068
모형4: 불안/우울에 대한 양육행동(C)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4.512	4	.972	.994	.057
모형6: 양육행동에 대한 불안/우울(D)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6.243	5	.978	.994	.051
모형7: 양육행동과 불안/우울의 오차 공분산(E) 사이에 동일성 제약	18.940	6	.980	.993	.049

모형1의 값을 중심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매 시점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전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으므로($\Delta\chi^2(\Delta df = 1) = 2.697, p > .05, \Delta TLI = .002, \Delta CFI = -.001, \Delta RMSEA = -.002$) 본 연구에서는 모형7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의 각 경로계수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최종모형 7의 모수추정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양육행동6 → 양육행동7	.527*	.018	.537
불안/우울6 → 불안/우울7	.494*	.018	.525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1.458*	.276	-.098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023*	.025	-.352
양육행동7	→	양육행동8	.527*	.018	.501
불안/우울7	→	불안/우울8	.494*	.018	.459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023*	.025	-.349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1.458*	.276	-.090

* $p < .05$

유아의 불안/우울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 유아의 불안/우울이 1.45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 유아의 불안/우울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023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붓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최종모형 7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282*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248*

* $p < .05$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우울은 낮았으며, 불안/우울이 낮을수록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아지면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유아의 불안/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아의 불안/우울이 높아지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다시 유아의 불안/우울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연구모형의 동일성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기본모형의 적합도(모형 1)를 시작으로 모형2부터 모형6까지는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7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기본모형	10.816	1	.917	.994	.091
모형2: 양육행동(A)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1.066	2	.915	.994	.083
모형3: 불안/우울(B)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1.473	3	.960	.995	.063
모형4: 불안/우울에 대한 양육행동(C)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1.503	4	.976	.995	.049
모형6: 양육행동에 대한 불안/우울(D)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13.229	5	.980	.995	.044
모형7: 양육행동과 불안/우울의 오차 공분산(E) 사이에 동일성 제약	14.172	6	.984	.995	.040

모형1의 값을 중심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매 시점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전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으므로($\Delta\chi^2(\Delta df = 1) = 0.943, p > .05$, $\Delta TLI = .004$, $\Delta CFI = .000$, $\Delta RMSEA = -.004$) 본 연구에서는 모형7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7의 각 경로계수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최종모형 7의 모수추정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양육행동6	→	양육행동7	.467*	.018	.474
불안/우울6	→	불안/우울7	.506*	.018	.539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723*	.245	-.070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005*	.001	-.046
양육행동7	→	양육행동8	.467*	.018	.468
불안/우울7	→	불안/우울8	.506*	.018	.469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005*	.001	-.043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723*	.245	-.050

* $p < .05$

유아의 불안/우울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 유아의 불안/우울이 .723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이전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 유아의 불안/우울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005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붓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최종모형 7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양육행동6 → 불안/우울7 → 양육행동8	.137*
불안/우울6 → 양육행동7 → 불안/우울8	.176*

* $p < .05$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우울은 낮았으며, 불안/우울이 낮을수록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높아지면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유아의 불안/우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아의 불안/우울이 높아지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다시 유아의 불안/우울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어머니의 우울 및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초기치 값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아졌으며, 낮아진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높인다는 김춘경, 조민규(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Lovejoy 등(2000)의 연구에서 우울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에게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아들은 욕구좌절이나 분노를 누적시키게 되어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게 되고, 분노와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불안과 우울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Davis & Cummings, 1994).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아질 수 있으며, 높아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규칙과 예절을 교육하고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등 통제적이고 훈육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의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부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어머니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유아들은 자신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여 불안이나 우울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적절한 효과적 양육이 어머니를 지지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되며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우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감소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향준과 조수경(201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부는 부모로의 전환기를 겪으면서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재정비하게 된다(Cowan & Cowan, 1995). 이 과정에서 부부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에게 서로가 기대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정립과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Bouchard & Lee, 2000). 하지만 우울한 어머니의 경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되어 부부 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아버지의 역할과 양육행동의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어머니의 우울을 살펴보고

야 하며, 유아교육 현장이나 상담현장에서 부모들을 도와주기 위한 의사소통 증진 및 부모 역할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불안/우울이 낮아졌으며, 낮아진 유아의 불안/우울로 인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Barnes 등(2000)의 종단적 연구에서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높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어 유아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발달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고 (Shreeber, Hops, & Davis, 2001),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문제를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유아의 낮은 불안과 우울은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증진시켜주게 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질을 높여주게 된다.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아의 불안/우울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낮아졌으며, 낮아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해 유아의 불안/우울은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부모의 통제적이고 학대적인 양육행동이 어떻게 자녀의 문제행동을 강화시키는지 설명하는 Patterson(1982)의 강압이론(coercion theory)과 일치한다.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고 문제행동을 하게 되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이유진·박경, 2005). 이로 인해 부모는 유아가 불안이나 우울이 높아 또래관계에서나 가정에서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신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초기의 통제적인 양육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언어적·신체적 처벌을 사용하는 등 학대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유아의 불안과 우울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불안/우울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아의 불안/우울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에 횡단적 접근을 넘어 종단적 접근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종단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검증은 기존의 횡단적 연구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매개변인의

시간적 선형성을 고려하고,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의 이전 시점의 상태까지 통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횡단적 접근의 연구들에 비해 더욱 방법론적으로 면밀하게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불안/우울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울이 나타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의 문제행동 중 불안/우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유아의 불안/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루는데 있어서 대부분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우울은 어머니의 우울에 국한되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비롯한 아버지의 우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이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권희경(2009)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하여 유아의 불안/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가는 일방향적 영향력만을 확인하였지만, Fletcher(2009)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간 상호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어머니의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유아의 불안/우울을 감소시키고 유아를 긍정적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으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제공하거나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에 앞서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통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 및 치료현장에서 유아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조기 개입과 우울 감소를 위한 부모상담을 병행하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유아기에 요구되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초기에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싶은 아버지의 의지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채화영과 이기영(2013)의 연구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성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남성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등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도 남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보며 자란 남성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해주고 부부 간 자녀양육에 대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주어야 하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부모교육이나 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직접 전문가가 방문하여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로 일방향적으로 설명되던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불안/우울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의 불안/우울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행동이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유아의 불안/우울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부모 개인의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불안/우

울과 같은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아의 불안/우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기 문제 예방을 위한 개입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해결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나 노력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비용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12), 부모가 된 이후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되기 이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나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등에 대해 알려주고, 올바른 자녀양육방식을 알려줌으로써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희경(2009).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4), 79-98.
- 김선희(201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5), 421-446.
- 김은주·김민규·임은비(2012). 유능성과 관계성이 내재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0(1), 193-225.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춘경·조민규(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6, 33-56.
- 김춘경·조민규·김숙희, 성정혜(2018).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우울, 유아의 수면문제 간의 구조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10, 85-105.
- 도현심·김민정·최미경·김상원·조수정(2012).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145-164.
- 박지영·강성단·권경숙(2010). 유아의 기질, 또래유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39-162.
-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국가승인 통계 제15407호,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아시아엔(2017. 9. 7.) [당신 결의 우울증] 6개월 유아한테서도 발견...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http://kor.theasian.asia/archives/176148>에서 2018년 3월 14일 인출함.

- 연은모·윤해옥·최효식(2016).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243-269.
- 오경자·김아영(2009).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부모용. 서울: 휴노컨설팅.
- 오경자·김아영(2010).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이미애·김광웅(1995). 아동기 기질과 부모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 10, 109-125.
- 이수진·홍세희·박종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 이유진·박경(2005).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5(2), 39-57.
- 정책뉴스(2017. 9. 4.) 늘어나는 소아 우울증,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1895&call_from=naver_news에서 2018년 3월 14일 인출함.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학가정학회, 37(10), 123-133.
- 중앙일보(2018. 4. 11.) '두 살 딸 방치 영양실조 사망' 못된 엄마에 징역 9년 확정.
<http://news.joins.com/article/22525836>에서 2018년 5월 23일 인출함.
- 채화영·이기영(2013).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5), 497-511.
- 최항준·조수경(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효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 8157-8164.
- 한겨레(2018. 4. 27.) 우울증 앓던 30대...3살 딸·9개월 아들 살해 뒤 자살 시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2530.html>에서 2018년 5월 23일 인출함.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KPA NEWS(2017. 7. 27). 어린이 '불안장애', 지난해 545명... '5~9세' 절반 넘어.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5957>에서 2018년 3월 14일 인출함.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school-age forms profiles*. Burlington, VT: Aseba.

- Adam, E. K., Gunnar, M. R., & Tanaka, A. (2004). Adult attachment, parent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75(1), 110-122.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243-277.
- Barnes, G. M., Reifman, A. S., Farrell, M. P., and Dintcheff, B. A. (2000). The effects of parenting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lcohol misuse: a Six-Wav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175-186.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 246.
- Bouchard, G., and Lee, C. M. (2000). "The marital context for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1), 37-54.
-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ampbell, S. B. (2002). *Behavior problem in preschool children*. NY: The Guilford Press.
- Cowan, C. P., & Cowan, P. A. (1995). "Interventions to ease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Why the are needed and what they can do". *Family Relations* 44, 412-423.
- Cummings, E. M., Cheung, R. Y. M., & Davies, P. T.(2013). Prospective relations between parental depression, negative expressiveness, emotional insecurity, and children's internalizing symptoms.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44, 698-708.
-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Duncan, T. E., & Duncan, S. C. (2004). An introduction to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rapy*, 35(2), 333-363.
- Feil, E. G., Severson, H. H., & Walker, H. M. (1998). Screening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elays: The early screening project.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1(3), 252-256.
- Finkelbeiner, C. (1979). Estimation for the multiple factor model when data are missing. *Psychometrika*, 44(4), 409-420.
- Fletcher, R. (2009). Promoting infant well-being in the context of maternal

- depression by supporting the fath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0(1), 95-102.
- Gollob, H. F., & Reichardt, C. S. (1987). Taking account of time lags in causal models. *Child development*, 58(1), 80-92.
- Goodman, S. H., & Gotlib, I. H. (2002).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Mechanisms of risk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ordon, D., Burge, D., Hammen, C., Adrian, C., Jaenicke, C., & Hiroto, D. (1989). Observations of interactions of depressed women with their childre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1), 50.
- Kauffman, J. M. (2005).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Englewood cliff, NJ: Merrill.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et al.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uczynski, L., & Kochanska, G. (1995). Function and content of maternal demands: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early demands for competent action. *Child Development*, 66(3), 616-628.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and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5), 561-592.
- Luby, J. L. (2010). Preschool Depression: The Importance of Identification of Depression Early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9(2), 91-95.
- Lyons-Ruth, K., Connell, D. B., Grunebaum, H. U., & Botein, S. (1990). Infants at social risk: Maternal depression and family support services as mediators of infant development and secur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1(1), 85-98.
- MacKinnon, D. P., & Fairchild, A. J. (2009). Current directions in mediation analysi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1), 16-20.
- Olson, S. L., Ceballo, R., & Park, C. (2002). Early problem behavior among children from low-income, mother-headed families: A multiple risk perspectiv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4), 419-430.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 Shreeber, L., Hops, H., & Davis, B. (2001). Family processes in adolescent depress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 19-35.
- Skalická, V., Belsky, J., Stenseng, F., & Wichstrøm, L. (2015). Preschool-Age Problem Behavior and Teacher-Child Conflict in School: Direct and Moderation Effects by Preschool Organization. *Child development*, 86(3), 955-964.
- Steiger, J. H., & Lind, J. C. (1980). *Statistically-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Turney, K. (2012). Pathways of disadvantage: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Social Science Research*, 41, 1546-1564.
- Verhoeven, M., Junger, M., Van Aken, C., Deković, M., & Van Aken, M. A. G. (2010). Parenting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Bidirectionality during toddler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93-105.
- Wang, S. Y., Chen, C. H., Chin, C. C., & Lee, S. L. (2005). Impact of Postpartum Depression on the Mother-Infant Couple. *Birth*, 32(1), 39-44.
- Weissman, M. M., & Jensen, P. (2002). What research suggests for depressed women with children.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3(7), 641-647.
- Weissman, M. M., Warner, V., Wickramaratne, P., Moreau, D., & Olfson, M. (1997). Offspring of depressed parents: 10 years later. *Arch Gen Psychiatry*, 54, 932-940.
- Werner, E. E. (1995).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3), 81-85.
- Yoo, S. K., & Lee, S. H. (2012). Relationships between child's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and mother's parenting style based on K-CBCL 1.5-5 and Gottman's types of parenting styl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8(2), 1-22.

- 논문접수: 4월 16일 / 수정본 접수 5월 25일 / 게재 승인 6월 12일
- 교신저자: 김춘경,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kckjung@knu.ac.kr

Abstract

The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in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on Infant's Anxiety/Depression

Junghye Sung and Choonkyung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in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in infant's anxiety/depress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anxiety/depress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were used.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s longitudinal data collect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was analyzed for the study.

First, the results analyzed by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revealed that mother's parenting behavior had significant partly mediating effect in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to infant's anxiety/depression. Also, mother's parenting behavior had significant completely mediating effect on the father's parenting behavior to infant's anxiety/depression. Second, the result fro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howed the longitudinal mediated effect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anxiety/depression. The results suggest development of a program to reduce infant's anxiety/depression and education for parents with infant children.

Key words: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infant's anxiety/depression